

스포츠로 되찾는 일상...“경기장 좀 늘려 주세요”

팬데믹 터널 끝 종합체육관 부족
광주시 2300억 투입 시설 확충

광주의 생활체육인 대다수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김모 씨 (50대, 남, 광산구)는 지난 5년간 배드민턴과 줄넘기, 복싱 등을 해왔다. 김 씨는 "체육시설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인다. 너무 비좁다"고 불편을 표했다. 이어 "직장인은 운동하는 시간대가 저녁이다. 조영시설이 갖춰진 실내 체육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체육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구, 배드민턴, 탁구, 수영 등 3개월째 다양한 운동을 하는 박모씨 (20대, 여, 광산구)는 "워치가 너무 애매하다. 운동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도 힘들다"며 종합체육관이 다양하게 분포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또한 "장소도 부족한데 심한 미세먼지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생각도 있다"고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운동을 꾸준히 하진 않아도 생활체육에 관심을 두는 시민들도 있다. 박모씨 (40대, 여, 광산구)는 "체육은 동호회를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이 있다. 다목적체육관이 늘어나야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체육시설의 편리한 접근성을 원했다. 이 밖에도 "연령대 무관하게 다양한 운동을 접해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종합체육관에 대한 갈증을 드러내는 시민들이 많았다.

실제로 광주시의 공공체육시설은 모든 광주시민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충분히 즐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 7월 광주시가 공개한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총 147곳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북구에서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44곳, 광산구 32곳, 동구 16곳, 남구 8곳으로 남구가 가장 적었다. 그중 광주시의 '생활체육관'은 총 16곳이다. 북구에 위치한 체육관은 5곳으로 가장 많으며, 광산



광주의 자전거 동호회 '오르카' 회원들이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장성호 일주도로에서 신나게 페달을 밟고 있다.

구와 동구는 4곳, 남구는 2곳이 운영 중이다. 마찬가지로 남구의 생활체육관이 가장 적다. 시민들의 이러한 공공체육시설 수요를 따르기 위해, 광주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시는 국비 782억을 포함한 2300억을 투입해 22개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중 13곳은 올해 개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완공이 파악된 공공체육시설은 '진월 복합운동장'과 '승촌 파크골프장', '우산 생활체육관'과 '반다비 체육센터'로 총 4곳이다. 한편, 지난 8월에 서구 상무시민공원

과 무등경기장에서 준공될 예정이던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진월 복합운동장'은 지난달 14일 광주시 남구에서 준공식이 개최됐다. 광주시와 남구는 진월제 주변 2만4047㎡ 부지에 축구장, 풋살장과 같은 복합운동장과 주차장 등 시민 편의시설을 구축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은 "5개 자치구 전체에 충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춰 시민 누구나 거주지에서 어려움 없이 오가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승촌 파크골프장' 또한 남구에서 지난 9월 23일에 개장했다. 18홀의

승촌 파크골프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춘 어르신 특화 생활체육시설이자, 남구의 유일한 파크골프장이다. 어르신들의 체육 활성화를 물론, 타 자치구로 이동해 운동하던 8개의 남구 파크골프클럽 회원들에게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산 생활체육관'은 지난 9월 30일에 북구에서 개관했다. 복합교육-체육 공간으로서 연면적 3,295㎡,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를 활용해 지상 녹지공간과 산책로를 보존했다. 지난 8월 18일에는 같은 북구에서 '반다비 체육센터'가 개관됐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1호의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서구와 남구까지 총 3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는 내년 6월, 서구는 2024년에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가 최근 들어서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광주의 생활체육인들은 여전히 체육시설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는 광주에 생활체육이 생생히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써, 앞으로 광주가 활기 넘치는 생활체육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 기대된다. /임채림 학생기자

광주시민 5만8000명 새롭게 참여...곳곳 무료 강습회

시민 '1인 1종목 갖기운동'

광주시민의 체력 향상을 책임질 '시민1인1종목 갖기운동(생활체육광장)'이 지난 4월부터 재개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실시하다 코로나 19로 잠정 중단됐던 '1인1종목갖기운동' 사업은 올해 '시민1인1종목갖기운동'과 '생활체육광장' 사업으로 확장됐다.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운영된 두 사업은 배구, 족구, 당

구와 같은 구기 종목을 중심으로 라인댄스, 요가, 복싱, 궁도, 및 다양한 종목에 참여해 일상 속 활력을 얻고 이웃 간 화합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민1인1종목갖기운동은 생활체육 인구가 많은 장소 38개소에 전담지도자를 배치해 주 5회 월 20시간 운영됐으며 9월까지 58,561명의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지역사회 활성화 토대 마련 등을 기대 효과로 꼽은 이 사업은 총 1억45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생활체육광장은 주 5회 새벽-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야외 광장 10개소에서 생활체조, 국악기공, 에어로빅 등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개됐다. 총 3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주거지에서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전 연령대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돕고 시민 간 정보교류의 장을 형성했다. 핀란드·노르웨이·호주·프랑스는 국민에게 생활체육 참여를 권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특히

15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정기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호주는 스포츠를 삶의 일부로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췄다. 부담 없이 국가의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고 유년기부터 활발한 체육활동이 중요시되도록 정부가 이바지해 온 것이다. 실제로 약물이나 음주 관련 사회 문제를 일으킨 호주의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 체육 활동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장애들을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시 또한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사

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성 광주시파크골프협회 전무이사는 1인1종목 운동을 통해 파크골프장을 찾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덕에 급속도로 홍보가 이뤄졌다"고 칭찬했다. 반면 안병수 광주시동구테니스협회장은 "모든 인구가 체육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건강을 위한 것이라도 강요할 수 없고, 자율에 맡기다보니 아직은 '알음알음' 일부만 찾아오는 편"이라며 "동구체육회 소속 지도자가 주 2회 무료 테니스 레슨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인지 회원은 10명 내외 정도"라고 말했다. /서민경 학생기자

극한
청결

환자와 의료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국내최첨단설비의 의료세탁물 처리기업
백양실업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전문업 Tel. 061)392 7900
(주)백양실업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